

인 적 사 항

1. 성 명(국문) : 이근

(한문) : 李根

2. 생 년 월 일 : 1960. 10. 12

3. 현 직 : 서울대학교 교수 (석좌교수)

4. 학 력 : <학사, 석사, 박사(연도기재요망)>

학사. 서울대 경제학부, 1983.2

석사 (수료), 서울대 경제학부, 1984.8

박사.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1989.12



5. 주요경력 및 연구업적 (5개항 이내) :

- 경 력 : ①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감사, 사무차장): 2022.2 - 2023.2
②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2021.1 - 2022. 3
③ 국제경제학회 회장. 2019.12 - 2020.12
④ 경제발전학회 회장 (2013.2 - 2014.2), 기술경영경제학 회장, 2014
⑤ President, International Schumpeter Society

연구업적 :

- ① Keun Lee, 2024. Innovation-Development Detours for Latecomers: Managing global-local interfaces in the de-globalization Era. Cambridge Univ. Press (Google Scholar: 1회 인용)
- ② Keun Lee, 2013. Schumpeterian Analysis of Economic Catch-up: Knowledge, Path-creation, & Middle Income Trap, Cambridge Univ. Press (Schumpeter Prize수상작, Google scholar, 854회 인용).
- ③ Lee, K. et al.(2021), "Variety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s & Alternative Pathways to Growth beyond the Middle-Income Stage" World Development 144, 105472 (Google 49회 인용)
- ④ Both institutions and Policies matter but differently at different income groups of countries: determinants of long run economic growth revisited (with BY Kim)," *World Development*, 2009, 37(3): 533-549. (Goole 491회 인용)
- ⑤ Lee, K (& C. Lim), 2001, Technological Regimes, Catch-up and Leapfrogging: Findings from the Six Industries in Korea, *Research Policy*, 30 (3): 459-483 (Google: 1,681회 인용)

자기 소개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경제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수석부회장 후보로 나선 서울대 석좌교수 이근입니다. 저는 그동안 학회의 사무차장, 국문 영문 저널 편집위원, 감사, 부회장 등 보직을 통해 회원들과 소통한 바 있습니다. 그 외, 국제경제학회, 경제발전학회, 기술경영경제학회, 현대중국학회 등 4개 학회의 회장 및 산업조직학회 사무국장으로 널리 교류한 바 있습니다,

저는 26년 2월이 정년입니다. 정년 전 활동의 마지막으로 한국경제학회의 회장으로 복무하고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학회와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뒤도 안 돌아보고 후회없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경제학자를 대표하는 학회의 장을 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연구와 교육 실적도 냈다고 생각합니다. 제 연구분야는 기술혁신과 경제발전 분야로서, 최근 5년 Google Scholar 기준 H-지수는 41, I10-지수 104로서, 국내 경제 교수 중 Top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캠브리지대 출판사에서 나온 2013년 저서로 비서구권 대학 교수로는 최초로 Int'l Schumpeter Society (ISS)로부터 쉘페터상을 받았고 이어 ISS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2018년 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EAEPE가 주는 Kapp논문상을 수상하였고, 2023년에는 유라시아경영경제학회의 Fellow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경제학회의 청람상, 한국경제학술상 외에, 학술원상, 경암상, 다산경제학상, 서울대 학술연구상, 학현학술상, 매경이코노미스트상, 시장경제대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교육에서도, 학문의 토착화와 후속세대 양성에 적극적이어서, 박사를 45명, 석사를 67명 배출하였습니다,

현재 대학은 인구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위기에 처해있고, 교수 집단의 위상은 날로 하락추세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학자의 대내외 위상과 자존심을 높이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우선, 25년 8월의 세계경제학자 대회를 잘 개최하여,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3대 지방지회 및 소장/여성경제학자의 참여를 더 활성화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경제 이슈 설문조사도 전 회원 대상으로도 (주요 언론사와 공동으로) 하여 학회의 영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경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경제학술상 상금을 인상하겠습니다.

저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동반성장위원회, 지식재산위원회, 산업발전심의회에서 활동하였고, 여러 중소기업과도 강의, 자문 등으로 교류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의 경제연구소장, 중국연구소장을 역임하였고, 2023년월에는 동아시아경제학회(EAEA) 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논객들의 칼럼을 싣는 project syndicates의 칼럼니스트입니다.

이런 경력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학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회원들과 같이 성장하는 한해를 만들겠습니다. 회원들과의 지역간, 성별간, 세대간의 소통 확대를 통해 다양성의 긍정적 외부성을 극대화하여, 저희 학회가 학술적 네트워크를 넘어 웃음과 정이 넘치는 따뜻하고 활기찬 공동체로 재탄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 약 사 항

1. 25년 8월의 세계경제학자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
(예산 및 재정 확보 노력; 학회 회원들 참여 기회 제고)
2. 수도권과 지방의 교류 강화하고, 3대 지방지회 및 소장/여성 경제학자 참여 더 활성화
(부회장 중 1인을 여성학자로 임명)
3. 한중일 중심으로 아시아 주변국과의 학술교류
(공동학술대회/세미나 정례화; 상호 개별 발표/참석 기회 확보)
4. 학회 기금 확대와 한국경제학술상 확대 개편
(상금 인상, 수상자의 발표 기회 제공 등)
5. 경제토론 (경제 이슈 설문조사)를 소수대상 및 전 회원으로 대상으로 이원화 및 확대
(이슈에 따라 전회원 대상 설문조사도 실시; 언론사와 공동으로 하여 학회 위상 제고)